

2010 대입 수능 광주·전남 최고 득점 영예

“변호인은 기록자로서 책무 있다”

원로 인권 변호사 한승헌씨
자서전 ‘고백과 증언’ 펴내



군사독재 시절 시국사범을 변호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고 김대중 정부에서 감사위원장을 지냈던 한승헌(75) 법무법인 광장 고문 변호사가 자서전 ‘한 변호사의 고백과 증언’(한겨레출판 펴냄)을 냈다.

책에는 한 변호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 한국 현대사에 대한 증언이 담겼다. 그는 김지하의 시 ‘오적’ 등 필화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 장준하·백기완 긴급조치 위반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 굵직한 시국사건들의 피고인 변호를 맡았던 당시를 돌아본다.

8일 언론과 만난 그는 민주화 인사들과 교락을 함께하면서 독재에 맞섰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변호사로서 내 역할은 이 세상의 주된 멤버는 아닐지라도 누군가는 때때로 야할 소중한 직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자서전 곳곳에는 유신독재 치하의 숨 막히는 법정 장면이 그려진다. 법과 정의가 자리할 틈이 없었던 시국사건 법정에서 민주화 인사들의 편에 섰던 그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었고, 군부의 눈밖에 나 자신도 반공법 위반으로 두 차례 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는 유신정권 시절 변호를 받았던 김상

현 전 의원이 “한 변호사가 변호한 사람치고 징역 안 간 사람 있으면 손들어보시오”라고 했다는 발언을 소개하면서 “꼭 그런 것은 아니었다”며 웃었다.

“보도지침 사건이나 박형규 목사 사건 등은 무죄 판결이 났어요. 김상현 의원에겐 ‘무죄도 몇 건 있을 뿐더러, 징역 가면서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 안 하고 간 사람도 있느냐’고 받아줬습니다. 석방이 안 된 때도 없지요. 최악의 상황에 만기 석방이라도 됐으니까. (웃음)”

한 변호사는 책에서 여러 필화사건과 반공법 사건들을 전하며 한국 사법부의 어두운 역사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 그는 “남들이 잘못 이해하는 요즘 세태를 안타까워했으며, 변호사에게는 역사의 기록자로서도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요즘 한국사회와 권력층에 대한 쓴소리를 했다. 그는 ‘근대적 법치주의’를 잘못 이해하는 요즘 세태를 안타까워했으며 사법부에는 ‘내부에서의 독립’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남뉴스

“학습 능률 안 오를땐 폭 쉬었다” “고난이도 문제 많이 푸게 주효”

705점 ... 광주 인성고 졸업 김혁군

광주지역에서 수능 7과목 표준점수 705점으로 최고득점을 얻은 김혁(재수생, 광주인성고 졸업)군은 “기대 이상으로 높은 점수에 감사할 뿐이다”고 말했다.

김군은 “기출 문제를 많이 풀며, 분석 위주로 공부한 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 같다”면서 “언어 영역의 경우 문제풀이는 모의고사만 취급했고, 나머지 공부는 기출된 지문을 체계적으로 습득했다”고 밝혔다.

김군은 특히 “애초 680점 정도 득점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나왔다”면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무리하지 않고 쉬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부보다 건강을 챙겨주는 어머니와 집안 분위기 탓에 쫓기지 않고 편

안한 마음으로 재수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면서 “음악을 듣거나 CG를 그리고, 독서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인 것도 능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성격상 어문계열에 입학해 공부를 하고 싶다는 김군은 “혹 이번 수능에서 실패해 재수를 결심한 학생들이 있다면 앞으로 몇주일 동안은 쉬면서 머리를 비울 필요가 있다”면서 “조급한 마음보다는 차분한 마음으로 실력의 원인을 먼저 분석해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697점 ... 목포 덕인고 이승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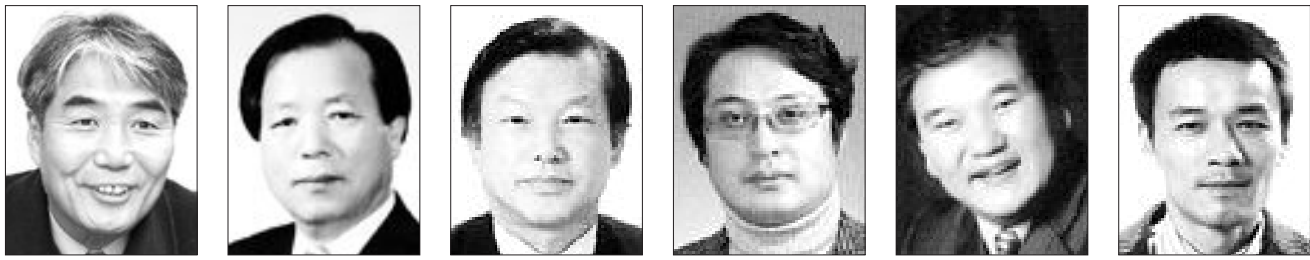
“다른 과목에 비해 안정돼 있지 않은 언어 영역 점수를 올리기 위해 아침마다 문제를 꾸준히 푸는 등 나름의 방법을 터득해 실천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 습니다.”

2010학년도 수능 결과 표준점수 기준(7개 과목) 697점을 얻어 전남지역 최고 득점을 올린 이승환(목포덕인고 3년)군은 “목포히 3년을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을 지도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군은 “고득점을 올리기 위해서 문제 자체를 푸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푸는지에 초점을 뒀다”면서 “문제유형을 분석하는 한편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많이 다루는 방법도 주효했다”고 자랑했다.

이군은 또 외국어는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 자신이 있다고 해서 비중을 줄이기 되면 막판에 성적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잘하는 과목도 꾸준히 학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모의고사 문제들은 최소한 3번 반복해 풀어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탐은 특히 개념을 잡으면서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고, 무엇보다 수능시험에서 떨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최영훈 교수, 함수남씨, 김대원씨, 강일호씨, 김광복씨, 조승기씨

광주 문화예술상 오지호 미술상 본상에 최영훈 교수

박용철문학상 함수남씨
허백련미술상 김대원씨
허백련미술상 특별상 강일호씨
임방울국악상 김광복씨
오지호미술상 특별상 조승기씨

최영훈(63)조선대 교수가 2009 광주시 문화예술상 오지호 미술상 본상 수상자로 8일

선정됐다. 색채학의 권위자인 최 교수는 색채원론, 색채학 개론을 펴내는 등 왕성한 저술활동과 창작을 통해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선보인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 강단에서 후진 양성에 힘쓰는 한편, 지난 1999년 광주시립 미술관장으로 재직하는 등 미술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용철문학상에는 함수남(69)씨가 선정됐고, 허백련미술상 본상에 김대원(61)씨, 특별상 강일호(40)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

다. 임방울국악상에는 김광복(56)씨, 오지호 미술상 특별상은 조승기(38)씨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5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시 문화예술상’은 지역 출신인 박용철, 허백련, 오지호, 임방울 선생의 숭고한 예술정신을 이어 받아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예술계 인사에게 매년 수여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쌀 판매 공로 감사패 받아

주요한 담양군수 권한대행은 8일 한국농업경영인회 담양군연합회로부터 쌀 판매 운동에 앞장선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담양군은 쌀값 하락과 수매물량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600여 명의 공직자가 쌀 팔기 운동에 나서 그동안 20kg짜리 5만2천 포대(2억2천여만원 상당)를 팔았다.

김윤아·김형규 부부 이동 홍보대사

혼성그룹 자우림의 보컬 김윤아와 VJ 출신 치과의사 김형규 부부가 국제이동권리전문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9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위촉패를 받는 김윤아 부부는 신생아의 생명을 구하는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에 참여한다. /연남뉴스

후배 공직자들이 새겨야 할 공직관 등 담겨

남상창 진도군수 권한대행 수필집

남상창 진도군수 권한대행이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느낀 점 등을 정리한 수필집을 발간했다.

수필집 ‘꿈을 가져라, 그리고 이뤄라’는 자전적 에세이로 공직 입문 계기와 고향인 신안군에서 근무할 당시 민원인과 업무처리 당시 에피소드 등을 소개했다.

“첫걸음은 가르쳐 줘야지” 등 총 18개 소제목으로 구성된 수필집은 후배 공직자들이 새겨 두어야 할 선인들의 문장과 바른길, 끈은길을 걸어야 하는 필요성을 담은 공직관 등이 함축돼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특히 고사성어와 본인이 33년 동안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비롯해 전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1년 동안 수석교수로 근무하면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했던 내용을 기초로 알기 쉽고 수려한 문체로 수필집을 작성했다. 남상창 진도군수 권한대행은 전남 신안군 입자도에서 태어나 한국방송통신대, 전남대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을 졸업하고 지난 1976년 9급 공채임용과 함께 33년 동안 신안군, 전남도에서 공직생활을 해오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광주세무서, 감사료 받아 연탄 구입 배달



광주세무서 무등봉사단 단원인 법인계 박권진 계장 등 직원 8명은 최근 광주시 남구 주월동 이모씨 등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6세대에 사랑의 연탄 2천장을 전달했다. 연탄은 박 계장이 감사료로 받은 돈 100만원으로 산 것으로 직원들은 연탄을 직접 가정에 배달했다.

조선대 병원장 이·취임식 가져



조선대병원은 8일 오전 병원 의성관에서 조남수 병원장 취임식 및 제18대 김민우 병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대학생 청렴홍보단 개·순·이 우수상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서울 권익위 청렴교육관에서 대학생 청렴홍보단의 활동 보고대회를 개최해 호남권의 개·순·이(개끗하고 순수한 이 세상 만들기) 팀에게 우수상(상금 100만원)을 수여했다.

KT광주마케팅단 동림동에 쿠팡쇼 1호점 개소



KT광주마케팅단(단장 전호중)은 8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 호빈베르 디움아파트 단지에 직원 한 명이 유무선 대리점을 운영하는 쿠팡쇼 매장 1호점 개소식을 열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이봉순씨 삼남 김창권군 정석채(전 광주일보 판매국)·이순남씨 딸 아양=12일(토) 오후 1시20분 상무지구 예술의 전당 2층(로즈마리홀)
▲신인재(광주동부경찰서)씨 아들 경원군 신운식(광주시 북구의원)씨 딸 수정양=12일(토) 오후 1시 금호생명 빌딩 30층(아시아홀)
▲나동선·최성지씨 차남 경수군 김원규·문삼남씨 차녀 도숙양=12일(토) 오전 11시 광주 경복궁웨딩컨벤션 2층(미소홀)
▲서상운·임연희씨 장남 인호군 김재선·서유정씨 장녀 지현양=13일(일) 오전 11시50분 광주 경복궁웨딩컨벤션 1층(경복궁홀)

동창·동문회

▲재광 전주영생고 송년의 밤(회장 이종욱)=10일(목) 오후 7시 북구 매곡동 천전초회. 062-576-7730.
▲순천중(29회)고(22회) 송년모임=10일(목) 순천 연향동 유심천입구 동서지간회집. 017-203-0301, 061-722-1063.
▲옥곡고등학교 32회 동창회 송년의 밤=12일(토) 오후 7시 북구 임동 서림초교 앞 도드람 스포스빌. 010-3203-4392.
▲광주일고 62회 송년의 밤=12일(토) 오후 6시 광주 경복궁웨딩컨벤션 2층 연회장.
▲영광 백수중학교 14회 동창회(회장 김남동) 송년의 밤=12일(토) 오후 6시 상무지구 라마다호텔 3층 연회장.

종친회

▲동래정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정현영) 이사회는=11일(금) 오전 11시 무등고시학원. 011-9615-8567.
▲한국 법치세 대종연합회(회장 최기후) 월례회=11일(금) 오후 5시 30분 금남로5가 진도회집. 062-236-3220.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동구 건강강정지원센터 희망상담=가족 갈등,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위기를 맞아 긴급한 상담 및 개입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진행. 062-234-5791.
▲북부비만, 피부관리 셀프무료 체험=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열 우산 갤러리. 062-261-5875, 011-9614-3348.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모집

▲국립나주병원 자원봉사자 모집=2주 1회 정기적으로 목욕 도우미 및 이모용 서비스, 정서지원 및 함께 운동하기, 노래 및 요가교실, 스포츠댄스 및 에어로빅. 지원자격은 대학 생 및 현업 종사자. 문의 061-330-4169.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 수시 모집=평일 초등학교 아침 5시30분~7시 30분. 010-9877-6166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가정 모집=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반위탁가정을 모집. 062-351-1206.
▲광주물세 클럽 수영 동호회 회원 모집=수영 무료로 지도해주며 30세 이상, 북구 거주자 환영. 011-602-2278.
▲광주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독서치료사·매주 월요일 오후 7시~10시, 방과후아동지도사·매주 화요일 오후 7시~10시, 심리상담사·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시, 강사·시인·아동문학자·심리상담지도사 김성구 박사. 문의 평생교육원(062-670-2167, 2168)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오카리나 회원 모집=매주 목요일 주1회(3개월) 건강타운복지관 1층, 광주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

자. 062-603-8860~71.
▲(사)베트남참전유공자회 광주지부 베트남 참전 전우·회원 수시모집=서구지회(018-645-2631), 남구지회(010-8000-6320)
▲씨호크 레저스포츠클럽 동호회 회원 수시모집=페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윈드서핑,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 062-675-8722.
▲백운산 다이빙스쿨 회원 수시모집=잠수교육, 스킨스쿠버다이빙. 062-671-9918.
▲황실 십자수 무료 수강생 모집=쿠션·시계·베개·주차중·방식·액자·지갑·핸드폰줄 제작 등 무료 교육. 062-512-4000, 062-528-8500.

부음

▲관양덕씨 별세 김정만·정호·의남·정문·숙자·숙희·순자·순례씨 모친상=발인 9일(수) 학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이희순씨 별세 정혁기·철기·은자·은희·현자·은미·은하씨 모친상=발인 9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서인숙씨 별세 변우진·성훈·수지씨 모친상=발인 9일(수)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양양순씨 별세 박찬수·성례·정례·현선·신숙·선숙·서영씨 모친상=발인 9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